

# 이 력 서



고 명 석    MyeongSeok Ko    高明碩

생년월일 : 1998.08.27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숙골로88번길 46 (도화동, e편한세상도화 6-1번지)

이메일 : [myeongsku@gmail.com](mailto:myeongsku@gmail.com)

연락처 : 010-4814 -6109

GitHub : <https://github.com/AlbertKo827>

---

## 경력

(주)티프렌즈

2016.07.28 - 2017.11.30  
(1년 4개월)

- 레이저 헤드 컨트롤러 TFS3 프로그램 개발
  - C# WPF 개발, Xamarin으로 UI/UX 개발
  - Basler Area Scan (or CDS) Camera 제어
  - 모터 컨트롤러 제어
- AOI 장비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 C# WPF 개발
  - Line Scan Camera 제어
  - 모터 컨트롤러 제어

연봉 : 2500

1/5페이지

- 전자회로설계과
  - C언어 등 프로그래밍에 기초
- 병역특례 우선순위 가능

### 자격증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카드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 개인 프로젝트 및 포트폴리오

### • KortFolio

- Front End : Angular 2/N, Bootstrap,  
BackEnd : Node.js,  
DB : MongoDB (NoSQL) 을 이용해서 제작한  
오직 나를 위한 포트폴리오 사이트
- Passport를 이용한 기존 SNS아이디로 간편한 가입
- Nodemailer를 이용한 contact기능
- Express.js를 이용한 RESTful API 구성
- [www.myeongsku.com](http://www.myeongsku.com)
- GitHub에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Git 정리

- Git에 사용하기 서툴지만 내용을 전부 정리한 자료
- Git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용법, GitFlow 외 툴 사용법  
등을 작성함
- KortFolio 사이트 내 로그인 후 PortFolio 내 에서 다운  
로드 가능

## 자기소개

21살 젊고 경력있고, 눈은 작지만 넓은 마인드를 가지고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명석**이라고 합니다.

### 저는 그저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시절, 학교가 끝나면 그저 게임할 생각에 들떠있었습니다. 이 게임, 저 게임 안 해본 게임이 없을 정도로 해봤지만, 결국은 쉽게 질리기 일수였고 그러던 저는 '내 스타일에 맞게 게임을 만들어보고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게임 개발을 하기에는 문턱이 터무니 없이 높았고 그래서 처음 접한 것이 유명 게임의 클라이언트를 가져와 따로 서버를 구성해서 자기만에 서버를 만드는 일명 '프리 게임 구축'이였습니다.

이를 접하면서 저는 mysql도 접해봤고, 게임 캐릭터를 강하게 하고 싶다는 욕심에 mysql을 이용해서 능력치를 터무니없이 변경하다 'overflow'현상 등 등을 겪어보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가까워졌습니다.

후에 개발자라는 꿈을 갖고 고등학교 진학을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의 반발이 무척 심했지만 어려서부터 일단 해보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인천전자마이스터고에 진학을 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자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개발자로서의 인생은 저의 의지이며, 앞서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힘들때마다 주저 앉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내고 스스로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팔리터에서 어떤 일이든 해쳐나갈 수 있는 Low Risk High Return에 인재라고 스스로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정말 배우고싶고, 하고싶은 것이 많습니다.

전 회사에서 C#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저의 모교 에서는 C#을 배우지는 않았었습니다. 저 포함 모든직원 6명 중 개발자는 저와 사수님 뿐이었고 사수님 마저도 하드웨어에 집중을 해야했기 때문에 주 개발은 제가 해내야했지만, 저는 정말 밑 바닥 이였습니다.

현 위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그 상황이 싫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 '실전'에서 나를 발전 시킬 수 있다는 상황이 그저 두근거렸고, 처음에는 사수님도 급하니 일단 저에게 맡기고도 걱정을 하셨지만 1~2달 후 저를 '신뢰'해주셨습니다.

또, 전 회사의 경력이 사회로 나가는 첫 걸음이었다면, 저의 개인 프로젝트인 'KortFolio'는 사회에 대한 저만의 젊은 도전이라고 하고싶습니다.

제작 중에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기존 C# 말고 다양하게 접해보고 싶었던 저는 회사를 퇴직한 후에 웹개발에 도전을 하였고 그게 'KortFolio'입니다. 이를 제작하면서 새로 공부해야 할 것은 정말 산더미 이었습니다. Angular 2/N, Node.js, MongoDB, HTML, CSS, Javascript, Typescript 등 등 하나를 배워서 끝내 놓으면 또 다른 것을 배워야했고 중간 중간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다고는 못해도 어디 내놓으면 '이건 하나의 홈페이지구나' 라고 할 정도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KortFolio의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와 함께 ios개발을 위해 swift를 공부하며 간단한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추후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한 kotlin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이처럼 지금부터 제가 해야하는 일이 제가 처음 접하는 것이라도 저에게 그 영역을 포커싱할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일이든 짧은 패기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을 저의 큰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으며 이는 공팔리터에서 업무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저의 부족함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개발자로서 저는 항상 스스로 만족을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 개발해온 많은 것들은 동작이 잘 되었을 지도 모르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듯 동작이 된다고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동작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생각 또한 저의 부족함 이었습니다. 후에 다른 개발을 하다가 예전에 개발 해두었던 프로그램에서 참고가 필요하다고 느낀 저는 참고하기 위해 소스 코드를 열었습니다. 분명 제가 개발을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몇 존재했고, 간편화를 좀 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동작이 잘 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됨을 느낀 저는 스스로를 되짚어 봤고, 실전을 통해 배운 프로그래밍 때문에 정말 필요한 기초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처럼 저는 스스로의 부족한 생각 덕분에 새로운 해답을 알아냈고, 부족함을 매꾸기 위해 디자인 패턴 및 알고리즘 같이 새로운 것을 스스로 찾아 배워나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결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자신이 하기로 한 일은 무조건 책임감을 갖고 임합니다.**

고2 시절, 동네 친구들과 또래들이 안해봤을 특별한 경험을 하고자 강릉에서 울진까지 오로지 걸어서 4박 5일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길이는 약 140km로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았으나 중간에 제가 다리를 삐끗하며 이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걸림돌이 될거 같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친구들이 저의 짐을 나눠 매주고 저를 부축해준 덕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제가 팀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어야하지만 저의 힘든 부분을 나누어 이겨내줄 수 있는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몸소 느꼈습니다.

다리를 빼끗한 것은 이겨냈지만, 며칠 내내 폭염주의보였던 터라 저포함 친구들 모두 금새 지쳐갔습니다. 친구들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지금이라도 대중 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의논을 했지만 저포함 친구들 모두 반 이상 왔는데 이제와서 포기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만약 친구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했다면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으며 이는 앞으로 저의 회사 생활에서의 행동을 할 때 우선 적으로 생각할 것이며, 팀들을 이끌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팀원들에게 의지하며, 자신이 하기로 한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는 인재라고 자신합니다.